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2003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선정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모자보건센터는 유니세프가 선정하는 2003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산모뿐만 아니라 일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엄마 젖 먹이기 홍보에 앞장서왔다. 특히 세계모유수유주간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광안리 해수욕장, 수영로터리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엄마 젖 먹이기 홍보물 및 전단지 등을 돌리는 등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임신부교실에서 “엄마 젖의 장점과 필요성” “모유수유 실천 방안” 강의 등을 통해 모유수유율을 높이고 있다.

모유수유는 아빠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예비아빠들에게 인공임신중절 예방, 남녀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등 모자보건사업 홍보와 더불어 엄마 젖의 우수성과 엄마 젖 먹이기를 적극 권장

하고 있다.

모자보건센터는 부산시 지정 무료분만기관으로 구·군 보건소장 등 무료분만 추천서를 지참한 산모에게는 무료분만 혜택을 주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수유 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과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부산지회는 부산시 특수사업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검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여성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암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성인병, 만성질환 등 각종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 교육과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시민의 의료비 경감에 보탬이 되고 있다. 최신형 38인승 버스에 첨단장비와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가족보건이동검진차량을 이용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하여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여성복지시설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야간 및 새벽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갱년기 상담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진료 등 여성들의 삶을 즐겁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여성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자궁암, 유방암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여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 여성암에 대한 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갱년기 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건강을 돌봐드리고 있다.

성, 월 2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힘쓰고 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성폭력예방 캠프를 열어 성폭력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 4층에 증축을 하고 있다.

부산지회의 모든 직원들은 가족 같은 친절함과 최상의 의료 및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PPFK**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가족처럼

남천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실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구

